

'이별이 떠났다' 가족드라마, 이제 '틀'을 깬다



틀 벗어버리는 독특한 설정 등 가족극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공식탈피! 가족드라마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MBC 주말특별기획 '이별이 떠났다'를 비롯해 '틀'을 깨는 가족드라마들이 시선을 강탈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45분 방송되는 MBC 주말특별기획 '이별이 떠났다'는 지난 17~20회 자체최고시청률을 경신하며 다시 한 번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다. 단순한 '엄마'의 이야기가 아닌 '엄마'가 되려는 여자들을 조망하는 서사, 더불어 '히키코모리 엄마', '고부워맨스', '질친사돈' 등 그간 가족극에서 상상할 수 없던 캐릭터와 관계 설정이 온전한 '이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독특 튀는 캐릭터를 탄생시키고 정형화됐던 관계를 깨트리며, 언급하지 않았던 주제를 이야기하는 신선한 시도가 시청자들의 심장을 저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별이 떠났다'는 물론 '데릴남편

오작부', '죽어야 사는 남자', '밥상 차리는 남자' 등 가족극의 심상치 않은 변화의 움직임을 정리해봤다.
■ 살짝 비틀어서, 새롭게, 신선하게!-틀을 벗어버리는 독특한 설정
'이별이 떠났다'는 혼전임신을 하게 된 여대생이 히키코모리처럼 틀 어박혀 지내던 여자를 찾아와 '동거신청'을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눈길을 끄는 점은 두 여자가 '예비 고부지간'이며,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함께 살기 시작한다는 것. 과거 '관계의 비밀'이나 '고부간의 갈등'이 주된 테마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고부워맨스'를 통해 발생하는 이해와 치유의 서사는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종영한 '데릴남편 오작부' 역시 30대 중반 직장여성들이 오로지 결혼한 여자, 유부녀라는 소셜 포지

션을 쟁취하려 데릴 남편을 구하는 이야기를 담았던 터. 낯다른 결혼 이유'를 통해 가족극의 틀을 과감히 깨며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 상상할 수 없던 인물들의 등장 주목!-선을 넘는 캐릭터들

'이별이 떠났다'에서는 가족들로부터 당한 배신으로 인해 스스로를 가둔 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히키코모리 엄마' 서영희(체시라), 시어머니에게 당차게 동거신청을 하는 혼전임신 여대생 정효(조보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두 집 살림하는 여자 김세영(정혜영), 사제업자였던 과거를 가진 남자 정수철(정용인) 등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해 신선함을 선사하고 있다. 드라마 '죽어야 사는 남자'의 경우에도 중동의 여만장자 석유 부호 백작 아버지가 등장해 독특한 비주얼과 센세이션한 유머를 선보이며 폭소를 끌어낸 바 있다.

■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다!-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

'이별이 떠났다'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친한 친구처럼 함께하는 '고부워맨스', 사돈끼리 치고받다 결국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사돈질전', 그리고 공장사장과 이주노동자가 '베프'를 맺는 등 색다른 관계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시대 속 다양한 개인의 성향에 발맞춘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도 '졸혼, 재혼, 비혼, 입양' 가족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를 이야기해 보여내며 호응을 얻었던 바 있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 '이별이 떠났다' 제작진 측은 '결혼도, 임신도,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도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별이 떠났다'는 틀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별이'의 캐릭터가 펼쳐낸 '낯선' 속 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MBC 주말특별기획 '이별이 떠났다'는 매주 토요일 밤 8시 45분부터 4회 연속으로 방송된다.

'엔트맨과 와스프', 개봉 6시간 만에 전작 스코어 넘다



의 첫날 스코어를 뛰어넘으며 신드롬을 예고했다.
'엔트맨과 와스프'가 4일 1시 영화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누적관객수 194,773명을 기록, 전작 '엔트맨'의 첫날 오프닝 스코어인 174,587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오전 7시 첫 상영 이후 6시간만의 대기 기록으로 개봉 당일 기록적인 오프닝 스코어뿐만 아니라 개봉 1주차인 금주 주말에 '엔트맨'의 첫 주 성적(1,314,502명)을 가볍히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엔트맨과 와스프'는

개봉 첫날부터 흥행 신화탄을 쏘아 올린 가운데 올해 마블 10주년의 시작을 알린 '블랙 팬서'와 1,100만 명 관객을 돌파한 '어벤저스: 인피

또 마블 광풍이다. 80%가 넘는 압도적인 예매율로 흥행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는 '엔트맨과 와스프'가 개봉한지 6시간만에 전작 '엔트맨'

니티 워'에 이은 또 하나의 마블 흥행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19편이 개봉된 마블 영화는 국내에서 약 9,5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엔트맨과 와스프'가 전편 '엔트맨' (누적관객수 284만 명)의 기록을 깨고, 마블 영화 1억 명 돌파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마블 흥행사를 다시 쓸지 기대가 모아진다.

개봉 후 영화에 대한 관객 반응이 뜨거워 신기록에 대한 기대에 힘을 더한다. '엔트맨과 와스프'를 본 관객들은 '엔트맨과 와스프, 후속편은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정말 잘 만든 영화의 모든 요소를 갖췄다', '역시 믿고 보는 마블, 스케일이 더 커지고 스토리도 탄탄, 유머도 잃지 않은 알찬 블록버스터', '여태 본 마블 영화 중 제일 많이 웃었다', '기발하고 센스가 넘친다', '2시간 내내 깔깔거리면서 웃다가 나왔다', '창의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최고의 가족 영화다'라며 유머와 액션, 감동까지 놓치지 않은 영화의

재미에 극찬을 쏟아냈다. 전 세대, 온 가족이 보기에도 손색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주말, 전 연령대의 관객층을 사로잡아 더욱 흥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갑분췌(갑자기 분위기 싸해짐)의 도가니 ㄷㄷ", "쿠기보고 다들 충격의 도가니 ㄷㄷ", "쿠기에서 소름이!!" 등 충격적인 내용의 쿠기 영상에 대한 생생한 반응도 화제다. 특히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와의 연결은 물론 영화에 등장하는 양자 영역 속에 '어벤저스 4'의 힌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이 모아져 이 역시 관객 동원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블의 폭스탄'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엔트맨과 와스프'는 '시빌 워' 사건 이후 히어로와 가장의 역할 사이 갈등을 '엔트맨'과 새로운 파트너 '와스프'의 예측불허 미션과 활약을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
마블 10주년의 히든카드이자 올 여름 극장가를 가장 뜨겁게 장식할 최강의 마블버스터로 최강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태리, 그녀의 첫 드라마가 기대되는 이유



을 위해 뜻을 품은 후 총기를 다루고 사색을 익히면서 열강 사이에서 무너져 가는 조국을 살리고자 마음 먹은 강인한 정신력의 인물로 한국판 잔 다르크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김태리는 영화 '아가씨', '1987', '리틀 포레스트' 등에 출연해 대중들에게 확실한 눈도장과 입장적인 연기력, 완벽 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여기에 그녀가 연기한 캐릭터는 물론 배우 또한 큰 사랑을 받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도

스크린에 이어 브라운관 데뷔를 앞두고 있는 김태리의 안방극장 접수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는 7일 밤 9시 첫 방송 예정인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은 신미야오(1871년)때 군함에 승선해 미국에 떨어진 한 소년인 미국 군인 신분으로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돌아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드라마다.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감독이 '태양의 후예', '출혈하고 찬란한 신도깨비' 이후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는 작품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은 것은 물론 김태리를 비롯해 이병헌, 유연석, 김민정, 비요한 등이 '미스터 션샤인'의 환상적인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극 중 김태리는 조선 최고 명문가의 아가씨, 사대부 영애 고애신 역을 맡았다. 그녀는 조부 몰래 한 성순보와 독립신문을 읽으며 조국

이처럼 그녀의 '미스터 션샤인'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김태리만의 캐릭터 흡수력과 표현력, 끊임없는 연구 그리고 첫 드라마이자 시대극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김태리는 출연했던 작품마다 자신만의 색으로 캐릭터를 구현해 나갔으며 이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두 마리의 토끼를 사로잡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손에서 대본을 놓지 않고 쉬는 시간 틈틈이 읽어 내려가며 여러 번 곱씹는 등 끊임없는 연구가 모여 완성된 종성만 극 역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주 무대였던 스크린에서 벗어나 이제껏 보지 못했던 브라운관과 시대극이라는 장르 속 김태리의 모습은 색다른 매력과 함께 조금 더 성숙해진 그녀의 매력을 엿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tvN 토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은 오는 7일 밤 9시 첫 방송된다.

방탄소년단, 美 빌보드 6주 연속 진입... '韓 최장기록'



3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轉 'Tear' 앨범은 빌보드 200에서 30위, 타이틀곡 'FAKE LOVE'는 핫 100에서 76위를 기록했다.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앨범과 싱글 차트에서 6주 연속 차트인하며 한국 가수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다.

또 LOVE YOURSELF 轉 'Tear'는 '월드 앨범' 1위, '인디펜던트 앨범' 5위, '톱 앨범 세일즈' 17위, '캐나다인 앨범' 20위에 각각 올랐다.
타이틀곡 'FAKE LOVE' 역시 '메인스트림 톱 40 팝 송' 35위, '빌보드 캐나다인 핫 100' 72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방탄소년단은 '소셜 50'에서 81번째 1위를 달성했으며, '히트스트 100'에서 7위에 올라 굳건한 인기를 재확인했다.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5일 목요일 (음력 5월 22일)

- ▶**황소** 어려운 시기가 서서히 지나고, 좋은 날이 다가온다. 쌓아둔 감정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라. 헤어진 사람과 재회한다. 급히 서두르지 말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임하라.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하다. 1, 7, 11월생 투기적인 것에 손대지 말라.
- ▶**쌍둥이** 6, 8, 9월생 금전 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과 과로로 인해 건강이 열려진다. 휴식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던 순리대로 일이 풀려나갈 운임을 알라. 7, 8, 9월생 흰색과 검은색으로 치장해 자신감을 갖자.
- ▶**황소** 현재 변동하려고 한다면 잘 생각하라. 1957년생, 7, 8, 9월생은 실패 수가 따른다. 2, 3, 5월생 사업가는 친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을 청하는 것이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낫다. 동쪽이 길하다.
- ▶**쌍둥이** 항상 부주해 피로가 쌓인다. 건강을 주의하라. 노력한 것보다 성과가 적으나 희생과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람을 찾으라. 6, 7, 10월생 애정이나 우정이 왜지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마음을 넓게 갖고, 크게 생각하라. 자녀가 지켜보고 있다.
- ▶**황소** 한 번에 여러 일이 일어나니 여수선하다. 방황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임하라. 1952년생, 7, 8, 9월생 애정은 믿음과 소신으로 유효를 물리치라. 한 번 실수로 평생 후회한다.
- ▶**쌍둥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다. 절약을 최선이다. 잡념을 버리고, 신중하게 판단하라. 6, 8, 12월생 타인 도움으로 소기의 성과를 일군다. 1965년생, 7, 8, 9월생 오늘에 행운은 당신의 것.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며 일한 미래를 설계함이 좋겠다.
- ▶**황소** 0, 7, 8월생 전보다 몇 배의 노력과 이해를 해야 할 때다. 이제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시기임을 알 것. 융통성을 갖는 것만이 최선의 길임을 알라. 3, 7, 12월생 금전으로 고심할 수.
- ▶**쌍둥이** 4, 8, 9월생 뜻을 두고 성실하게 밭아 올라갈 때 금운이 온다. 정신을 바로 하고 앞을 직시하라. 모두 이루어다 정작 내 길은 놓칠 수 있다. 한 몸으로 한 길만 택할 때 대성한다. 세일즈, 서비스업 종사자는 길하다.
- ▶**황소** 마음처럼, 뜻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뿐이구나. 1956년생, 7, 8, 9월생은 쌓인 감정을 풀어야 한다. 오늘 하루 근신하는 것이 좋겠다. 2, 7, 12월생 중개업, 의료업 종사자는 투자해도 무방하나 문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
- ▶**쌍둥이** 지나친 감정 표출은 억제하고 안정을 취하라. 상대방 처지에서 생각하는 야량이 필요하다. 1957년생, 7, 8, 9월생은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라. 1, 2, 7월생 남의 일만 해주고 내 실속은 없겠다.
- ▶**황소** 소리는 크게 실속은 별로 없으니 소문만 무성하고 결실을 보지 못한다. 겸손하게 전환점을 찾을 때다. 신중히 생각하라. 7, 8, 9월생은 동, 서쪽 사람의 조언을 참고하라. 애정은 내 마음을 잡으라. 욕심부리다 한꺼번에 잃는다.
- ▶**쌍둥이** 충동적으로 남의 말만 믿고 확장하는 것보다 흐름에 따라 결정하라. 7, 8, 9월생 적극적인 행동보다 조용한 가운데 실속을 찾아야 한다. 4, 7, 9월생 애정은 서로 자존심을 버리고 협력해야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다.